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비상 꿈꾸는 KIA 야수 최용규·투수 홍건희

"미생에서 완생으로…1군 향해 갑니다"

◀최용규 홍건희▶

美 교육리그서 선진야구 경험·日 마무리 캠프 합류

최, 타격감·체력 좋아져…홍, 선발 목표 집중훈련

KIA 타이거즈의 2015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키스톤 콤비' 김선빈·안치홍이 동반입대했고, 마무리 없는 불펜은 몇 년째 팀의 아킬레스건이다.

KIA 외부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오히려 달아오르고 있다. 기회의 문이 열리면서 내부 경쟁에 불이 붙었기때문이다. 기회의 2015년을 기다리는 선수들, 야구에 대한 간절함까지 안고 있는 두 예비역의 겨울은 더 뜨겁다.

예비역 내야수 최용규와 투수 홍건희는 지난 가을 원없이 야구를 했다.

9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된 교육리그에서 선진 야구를 경험한 이들은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다시 짐을 싸 일본으로 갔다. 두 선수는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묵묵히 땀을 흘렸다.

두 달 여의 긴 여정이었지만 힘든 시간이기보다는 꿈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어느새 30대에 접어든 최용규에게는 더 특별한 가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느라 팀에 돌아오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야구에 대한 간절함은 커졌지만 오랜 공백으로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최용규는 "교육리그에 가서 빠른 볼도 상대해보고 하니까 내가 의미 없이 스윙만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오래 쉬어서 공 맞히는 걸 까먹고 있었다. 교육리그와 마무리 캠프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이 타격이다. 공 때리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아프던 어깨가 오히려 좋아졌고, 많이 뛰면서 체력도 키웠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입대 전 최용규는 3개의 글러브를 들고 다닌 적이 있다. 팀 상황으로 내야수 최용규는 외야수와 1루수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가을을 보내며 그는 비로소 내야수로 자리를 잡았다.

최용규는 "이제 정말 야구를 하는 기분이다. 마음이 편하다. 모교인 공주고에서 지냈는데 조만간 광주로 가서 훈련을 할 생각이다. 목표는 딱 하나다. 내년에 무조건 1군에서 뛰는 것이다"고 밝혔다.

홍건희의 가을도 알찼다. 2011년 화순고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한 홍건희는 시범경기에서 유연한 투구폼과 슬라이더를 앞세운 배짱투로 눈길을 끌었던 유망주다. 하지만 2군에서 시즌을 출발했던 홍건희는 부진을 거듭하며 긴 슬럼프에 빠졌고, 결국 2013년 상무에 입대했다.

홍건희는 "일찍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마음이 편한 것 같다.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 또 상무에서 많은 선수들을 만난 것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두 달 여의 훈련이 배움의 시간이 됐다는 홍건희. 겨울에도 훈련을 쉬어갈 수가 없다.

홍건희는 "마무리 캠프를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 몸 만든 게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쉴 수 없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 화순에서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며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예 신경을 안 쓴다면 거짓말이고, 팀 상황 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겠다. 선발이 목표이긴 하다. 일단 1군에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맹장 수술' 펜싱 최은숙 왜 출전 강행 했을까

"무모" "혹사" 뒷말…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의식

"상처도 아물기 전에 출전시키는 건 선수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요? 선수도 너무 무모했다고 봐요. 만약 상처가 터져 덧나면 어쩔거에요."

지난 23일 '맹장수술 투혼'을 발휘하며 전국에페종목별대회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여자 에페의 기둥' 최은숙(광주 서구청)과 관련한 뒷말이다. 대체로 "혹사시킨다", "무모했다"는 얘기들이다.

그렇다면, 왜 최은숙은 실밥도 제거하지 않은 채 출전을 강행한 걸까?

박광현 광주 서구청 펜싱 감독은 "(은숙이가) 워낙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내년 국가대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다.

올해는 유독 대회가 연말에 쏠려 있다. 지난 23일 '2014 전국 남녀에페종목별 오픈 펜싱선수권대회'에 이어 24~27일 '제5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27~30일 '2014 펜싱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이다.

모두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리며, 상위 20%에 들면 시드배정을 받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예선을 면제해준다.

펜싱은 예선전에서 예측불허의 결과가 나온다. 먼저 5점을 획득하는 예선전은 아무리 베테랑일지라도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힘겹더라도 종목별대회와 대통령배를 뛰어 시드를 획득해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최은숙은 공교롭게도 종목별대회 닷새 전인 지난 17일 충북 문경에서 열린 실업연맹회장기대회 직전에 복부 통증으로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급성맹장염 진단을 받았다. 그는 18일 급히 광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나흘만인 22일 다시 양구에서 종목별대회에 출전했다.

국가대표에 선발돼야 '리우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우올림픽은 2016년 열리지만, 내년에 올림픽 티켓 확보여부는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티켓을 따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탓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맹장수술로 컨디션이 최악이지만, 대회 출전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감히 어딜…"

25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SK 대 삼성 경기. SK 에런 헤인즈가 삼성선수 라이온스의 슛을 블로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호, 연봉 홈런

내년 7억원에 계약…올해보다 40% 인상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 박병호(28·넥센 히어로즈)가 다음 시즌 연봉 7억원을 받는다.

넥센 히어로즈는 3시즌 연속 홈런왕에 오른 박병호와 올해 연봉 5억원에서 40% 상승한 7억원에 계약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병호는 올 시즌 52홈런을 기록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대 네 번째 50홈런 타자에 등극하는 동시에 3년 연속 홈런왕은 물론 1루수 골든글러브까지 휩쓸었다.

그뿐만 아니라 128경기에 모두 출장해 459타수 139안타로 타율 0.303에 124타점, 126득점, 출루율 0.433, 장타율 0.686을 기록, 타점 1위와 득점 2위, 출루율 5위, 장타율 3위 등 전방위적 활약을 펼쳤다.

박병호의 내년 연봉 7억원은 해외에서 복귀한 선수, 자유계약선수(FA), 외국인을 제외하면 올해 SK 최정의 연봉과 나란히 역대 최고 액수에 해당한다.

박병호는 2012년 연봉 6200만원을 받았다. 그해 홈런·타점·장타율 3관왕과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및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연봉이 무려 254.8% 오른 2억2000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2013년에는 홈런·타점·득점·장타율 4관왕에 MVP와 골든글러브를 받아 올해 5억원을 받았다. 증가율은 127.3%에 달했다.

/연합뉴스

ML 시카고 컵스 유망주 이대은, 日 지바롯데행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한 한국인 오른손 투수 이대은(25)이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 마린스와 계약했다.

25일 스포니치 등 일본 언론은 지바롯데가 내년 시즌 외국인선수로 이대은과 1년 연봉 5400만엔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이대은은 다음 달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스프링캠프부터 본격 합류할 예정이다.

서울 출신인 이대은은 신일고 재학 중이던 2007년 6월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계약, 한국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지만 올 시즌까지 시카고 컵스 산하 트리플A팀인 아이오와에서 뛰면서 마이너리그 통산 135경기에 등판해 40승 37패에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했다. 시속 150㎞ 이상의 직구가 이대은의 주 무기다.

지바롯데는 이대은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야쿠르트 스왈로스로 이적한 나루세 요시히사의 공백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